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4일 월요일 음 8월 4일 (1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2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1/28℃
모레	맑음	21/28℃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7~29℃로 예상된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아직 낮 시간 자외선이 강하니 외출시 유의해야겠다.

	해뜸 06:16 해짐 18:42		달뜸 09:13 달짐 20:07
물때	만조 12:24 —:—		간조 06:39 19:03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매우높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AI 수장들 이구동성 "개발 속도 늦춰야"

앤트로픽 CEO 주장에 동조

인공지능(AI)가 악용되는 등 공포가 커지면서, 글로벌 AI 업계 수장들도 일제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을 이끄는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확보된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800단어에 달하는 장문의 이번 글은 앤트로픽이 AI 기술 안전성 우려를 담은 위협정보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이틀 후에 나왔다.

당시 보고서는 무기 개발, 사이버 작전, 감시, 사기 행위 등에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를 자세히 다뤘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연합뉴스

아모데이 CEO의 글이 올라온 이후 AI 업계의 다른 인사들도 잇따라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X에 "다리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외부 안전 평가자를 배치하자는 아모데이 CEO의 방침을 오픈AI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xAI의 일론 머스크도 "다리오가 맞다"며 동조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창업자도 X를 통해 "다리오의 방향성은 옳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이 상 민
정치부장

성급과 신속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179명이 사망한 사고의 공식 명칭이다. 참사 명칭에 무안공항을 넣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 지역 혐오와 함께 유가족 트라우마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렇게 결정했다. 한국심리학회도 비슷한 이유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길에서 시민 156명이 압사한 사고 명칭도 지명을 뺀 '10·29 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던 당시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사고 명칭에 무안공항도 함께 넣자고 건의했다. 공문을 보낸 시기는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엿새 만이었다.

제주도는 사고 여객기 이름이 제주로 시작하다 보니 참사가 마치 제주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해돼 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건의를 했다.

도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제주도의 심정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더욱이 제주관광은 이미지로 먹고사는 산업이 아닌가. 하지만 저간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인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유가족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 했다면, 그것도 참사 6일 만에 이런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사회적 논의 없이 참사 이름을 특정 집단 요구대로 정한다면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비친다", "참사 명칭이 아니라 제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와 학계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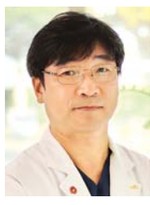
시계추를 현재로 돌려보자.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연이어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들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묘한 기시감이 든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는 경찰 내부 통제 기능이 상실돼 발생한 것이지 CCTV영상 보존 기간이 짧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정보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도의 이번 대책을 두고 "본질을 가린다", "성급하다", "공론화가 우선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제주 이미지가 실추되니 뭐라도 해보겠다는 제주도의 심정을 이번에도 이해한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수는 없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사안일수록 신중한 대처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 신속과 성급은 그 뜻만큼이나 간극이 큰데도 가끔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소리다.

열린마당

트윈데믹 경고등… 대유행 전 선제 접종 필요



윤 현 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건강증진의원장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재반등하면서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유전자 변이를 거치며 유행 주력 균주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회 백신 구성 균주를 새롭게 권고한다. 지난해 접종을 마쳤더라도 매 절기 새로 나온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 이유다.

빠르게 확산되는 독감을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체내에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가 걸린다. 이미 유행 기준을 넘어서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접종 시점이 유행 확산 속도보다 앞서야 한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은 10월 12일부터(75세 이상부터 순차 시행) 진행된다. 올해부터 접종 대상이 만 14세까지 확대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같은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시행되고 있어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독감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개인위생 강화는 물론, 백신 접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고령층,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 접종 일정에 맞춰 서둘러 예방접종을 마쳐줄 것을 당부드린다.

인천상륙작전과 '무적 해병' 제주 청년

오 을 탁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도지부

오는 15일은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다.

맥아더 장군은 적의 후방을 차단하고 보급선을 끊기 위해 한강 시찰 직후부터 상륙 작전을 구상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고 갯벌이 넓어 상륙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적의 허점을 찌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인천 상륙을 관철했다. 만조 시간에 맞춰 미 제1해병사단과 대한민국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 함대가 월미도에 상륙하며 작전을 개시했다.

제주 출신 청년들도 해병대에 입대해 이 작전에 참전했다.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해병대 3기와 4기 장병들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전쟁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1950년 8월 17일 해군·해병대가 최초로 성공시킨 국군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실시된 인천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전투, 그리고 1951년 6월 강원도 양구군 해안리 도솔산 전투를 승리하며 당시 제주 청년들은 '무적 해병'이라는 자랑스러운 신화로 불리고 있다. 2005년 전쟁기념사업회가 선정한 '100인의 호국 인물'에 올라와 있는 고(故) 고태민 대위, 고 김문성 중위, 고 강승우 중위, 고 한규택 하사 등 제주 청년 네 분의 업적도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인천상륙작전 의미를 되살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아 국가 안보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